

# 大學授業 지원을 위한 教材센터 운영

金 忠 會  
(忠南大 教育學科)

대학교육의 目標가 합리적이고 특창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면, 대학의 授業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理解에 도달하는 思考를 경험케 하고 지식을 스스로 探究하는 경험을 축적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수업에서는 다양한 授業資料가 필요하며, 여기에 수업지원을 위한 教材자료센터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 1. 序 言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어떤 인간을 양성하여야 하는가, 또 하고 있는가에 관한 論議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 가운데 괄목할 만한 것은 우리의 대학들이 많은 지식을 기억하는 博識한 인간은 길러왔으나, 그러한 지식을 응용하여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르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대학에서 배운 과목에 나오는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능숙하나, 그러한 지식 내용을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갖춘 人材를 육성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비효율성 문제의 원인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教育實際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지만, 대학교육 하나만 떼어 놓고 생각한다면 가장 직

접적인 원인을 대학에서의 교육방법 또는 授業方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짧은 시간내에 많은 내용을 전수하는 데 적합한 일방통행식의 講義方法에 의해 대학의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든 위에 지적된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러한 강의식 수업이 대학에 왜 만연되고 있는가?

그 표면적 이유로 가까이는 多人數學級과 教育교재 부족, 멀리는 교수인력, 시설, 설비와 관련된 教育재정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학교육에의 투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人力과 教育공간 및 설비가 부족하기 마련이고, 불가피하게 다인수학급을 운영하게 되며, 결국 일방통행식 강의 일변도의 수업 이외에 다른 방법을 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설명은 타당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이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教育投資가 확충되면 수업의 방법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해 선뜻 긍정적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또다른 이유가 이 문제 속에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대학의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사람의 문제로 요약된다.

이 글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經驗으로서의 교육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중요 요소인 교육경험의 組織의 측면에 관해 살펴보고, 교육과정 실천에 필요한 수업교재 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2. 授業의 의미

수업(teaching)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정한 目標行動을 습득하도록 그들의 외적 조건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過程으로 볼 수 있다. 즉, 수업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행동특성을 갖추도록 그들의 심리적 과정에 알맞은 외적 조건으로서의 學習經驗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定義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수업이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적인 것이고,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와 달성하려는 목표의 특성에 따라 학습경험의 내용과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단 한 시간의 수업만을 관찰해 보더라도 수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수업행위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多種多様하다.

그린(Thomas Green)은 그의 저서 *The Activities of Teaching*에서 수업의 개념을 교사의 교실수업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학교의 수업이 목표로 하는 바를 크게 둘로 나누어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行動을 습득하게 하는 것(teaching to do ××)으로 보고, 다른 하나는 知識이나 信念을 형성하게 하는 것(teaching that ××)이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 운전기술이나 기능을 습득시키든가 또는 특정한 외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것은 行爲를 학습하게 하는 것에 해당되며,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알게 하거나 믿게 하는 것은 知識 또는 信念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구분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린은 수업의 개념과 관련하여 訓練(training), 條件化(conditioning), 教授(instructing), 教化

(indoctrinating)의 개념들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린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訓練은 行動造形의 한 방법이면서 반사적 행동이 아닌 認知的 요소가 포함되는 행동을 습득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수업의 下位概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條件化는 행동조형이라는 점에서 훈련과 비슷하여 겉으로는 수업의 하위 개념으로 보일런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학습자의 인지활동이 포함되지 않는 기계적 반응을 조형하는 것이라면 수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훈련은 학습자에게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특정한 행위나 기능을 발휘하도록 가르치는 것, 즉 행동의 형성에 관련이 깊은 것으로서 그 행동의 발현에 있어서 유기체인 학습자의 認知的作用이 포함될 때 수업이라는 개념으로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에게 어떤 실험 절차를 따라 실험 조작을 하는 기능을 연습시킨다든가, 비행사가 새로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 행동의 습득을 위한 훈련 과정에는 학습자의 인지적 작용이 포함되기 마련이어서 訓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授業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등의 인지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생리적 반사 작용이나 단순하고 기계적인 반응 같은 것의 습득을 지향하는 '훈련'은 條件化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을지언정 수업의 개념 속에는 포함시키기 어렵다. 이와 같이 기능이나 행위 습득의 측면에서 볼 때, '수업'은 유기체가 지니고 있는 記憶力·思考力·判斷力 등과 같은 知的作用을 수반하면서 수행되는 행위나 행동을 습득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수업의 또다른 측면으로서 그린은 教授(instructing)와 教化(indoctrinating)의 개념을 분석하고 있다. '教授'는 주로 지식 습득이나 信念의 形成에 관련된 수업의 하위개념이지만, 이를 통하여 습득된 지식이나 신념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훈련'과 유사한 성격을 띠기도 한다. '教授'라는 개념에 따른 수업에서는 지식이나 신념의 내용에 관한 학습자와의 의사소통 활동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

한 활동은 학습시키려는 지식이나 신념에 관하여 그 성립의 증거나 이유를 확인하고 정당화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등 매우 논리적인 설명체계에 따르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예를 들면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교수’ 함에 있어서 그 증거들이 제시되고 그 증거들이 지지하는 바에 따라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구가 둥근 것에 대한 경험적이거나 논리적인 설명체계에 따라 의사소통과정이 이루어져서 理解에 도달하게 하는 수업을 ‘교수’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眞理追求를 조장하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습자로 하여금 진정한 ‘앎’에 도달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유형화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教授를 통하여 획득되는 지식내용은 타당한 근거를 가지는 信念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는 특정한 행동을 표출할 수도 있게 된다. 수업이 眞理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教授’는 바로 수업의 핵심적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신념의 형성에 관련된다는 점에서는 教授와 유사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이 教化(indoctrinating)이다. 教化는 어떤 내용에 대하여 정당하거나 타당한 근거가 결여된 채 그대로 받아들여서 확신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권위나 비객관적 근거, 편파적 이유 등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내용을 신념화할 때 이것은 盲信이 될 것이며, 지식내용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질 때 학습자는 理解에 도달하기보다는 기계적인 암기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교화는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인지적 작용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타당하고 합리적인 설명체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교화에서의 성공과 教授에서의 성공이라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교화에서의 성공은 교수에서의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한 수업이 학생으로 하여금 지식에 관하여 진리를 탐구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교화’는 수업에서 극히 주변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고찰한 授業의 개념에 관해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수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적 과

정이라는 점, 둘째로 수업의 목표가 학습자의 표면적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 또는 지식 및 신념의 형성에 있다고 볼 때 수업의 중심적 유형(mode)은 教授와 訓練이 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로 지식 및 신념의 형성을 위한 수업이라면 학습자가 지닌 인지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참된 이해 또는 신념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3. 大學授業의 改善方向

대학수업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수업설계로부터 수업방법, 시설, 교육과정 편제, 교수인력, 지원체제 등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간접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논의는 여러 가지에 미칠 수 있다. 이것은 대학의 수업이 실제로는 교수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대학수업의 양상을 결정하는 데는 그만큼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과들이 그 특성에 있어서 다양한 만큼 특정한 수업방법을 제안한다는 것도 별 효용성 없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학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져야 할 經驗들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교과내의 중요한 지식을 理解하도록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암기나 기억을 넘어서 이해에 이르도록 하는 경험, 즉 ‘教授’의 개념에 따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의 외형적 면모가 강의식이든 토의식이든 학생들로 하여금 그 지식이 왜 成立하는지 분명히 판단하도록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의 덩어리를 그대로 기억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성립되기까지의 論理的 過程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注入式이 아닌 說明이나 例示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둘째로 지식의 일방적 전달방식을 벗어나서 학생으로 하여금 發見 및 探究에 관한 思考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습하여야 할 개념이나 원리 또는 이론을 접할 때 그것들이 적용되는 상황 속에서 문제의식이나 호기심을 가져보는 경험, 문제의식에 대한 가능한 해답을 思考를 통해 도출해보는 경험, 그 해답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생각하고 構築하는 경험, 논리적·실증적 근거에 의해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경험 등 이른바 ‘생각하는 경험’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강의식 수업에서라면 학생들이 이러한 思考를 경험할 수 있게끔 체계적 질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少人數學級에서는 적합한 주제를 설정해서 수시로 토의식이나 발전식 수업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학생들이 수동적인 학습을 탈피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지식에 대해 의문도 가져보고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을 전개해 보게 함으로써 그들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思考의 경험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가지게 하려면 학습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읽기자료와 실습자료들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학생들에게 評價的 思考의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습내용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理論이나 學說, 主張 등에 관하여 무비판적 수용을 하기보다는 그것들에 대한 價値 判斷的 思考의 과정이나 合理的 思考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단편적이고 편파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多元的 思考를 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주제에 관해 보다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수업운영 전에 다양한 읽기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학생들이 自律的으로 학습하는 태도와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습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내용을 이해하며 요약해 보고, 다른 내용과 비교해 보며 리포트를 작성해 보게 하는 등 학생들 자신이 학습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수업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受容學 齣에만 익숙해진 우리나라의 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의 제공이 더욱 요청되며, 이에 따른 교수의 치밀한 계획과 지도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대학에서의 학습은 교수 주도의 수업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학습 과제 해결과 학습자의 자율적 탐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마땅하다. 물론 어떤 종류의 자료에 접하고 그 자료를 어떤 방향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등의 기본적인 학습 방향은 담당교수가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교수의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 내용을 이해하여 지식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학습활동은 대학교육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로 대학에서의 성적 관정을 위한 評價 內容은 수업에서 의도했던 지식 이해의 수준에 관한 것과 함께 학생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정리하는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평가 문제는 물론 수업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내용에 관련된 것이 되겠지만, 암기 위주의 지식에 관한 출제를 한다면 학생들도 이에 대응하여 외우는 공부를 하기 쉽고, 따라서 수준 높은 지식이나 능력의 습득을 위한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과 독창적 사고력 등의 육성을 목표로 삼아 운영되었다면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학기중에 사용할 학습 자료와 노트를 보고 문제에 답하도록 하는 평가 방법은 단순한 지식 이상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방법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수업에서 목표한 학습경험의 내용과 일관된 평가를 학생들에게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는 대학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學習經驗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교수가 어떠한 형태의 수업방법(예: 강의법, 토의법, 탐구법 등)을 취하든간에 대학수업에서 이룩되어야 할 수업의 기능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든 과목의 모든 주제에 관한 수업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 4. 授業支援을 위한 教材센터 운영

현재 각 대학에는 최소한 하나의 圖書館이 있

다. 이 도서관은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 기타 정보를 수집·분류·저장해 놓고 필요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은 대학 전체의 기능과 그에 따르는 수요를 예측하고,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대학의 수요에 응하고자 설립된 기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년에 와서 대부분의 도서관은 전산기의 발달에 힘입어 情報의 電算化를 이룩하였으며, 그 결과로 정보 검색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져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지원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대학 도서관이 수업활동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대학의 대형화 추세에 따른 학생수 및 학과수의 증가와 교실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대학 도서관이 각 과목의 수업에서 필요한 학생 및 교수용 자료를 신속히 공급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 대개의 수업에서는 학습의 기본인 교과서는 학생 각자가 구입하게 되고 수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다른 도서의 부분적인 내용이거나 연구잡지에 실린 연구논문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내 한 개의 도서관이 이러한 부분적 자료들을 준비·대출·회수하는 업무를 감당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물론 소규모 대학의 경우에는 도서관이 전교의 수업자료를 지원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 교수의 수업을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교제센터의 운영이 필요하게 된다. 이 교제센터는 성격상 도서관의 分館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교수가 수업하는 교실과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으면서 수업활동에 국한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용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업 지원을 위한 교제센터의 유형과 규모는 수업담당자인 교수들의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대학의 수업이 앞에서 제안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을 전제로 할 때,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제는 인쇄교제와 비인쇄교제의 두 유형이 될 것이다. 인쇄교제란 지면에 인쇄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의미하며, 비인쇄교제는 각종 시청각 자료와 기기 및 컴퓨터매체를 가리킨다. 인쇄교제는 주로 학생용 읽기자료가 되고, 시청각자료와 기기는 주로 교실수업에서 사용하게 되며, 컴퓨터매체는 학생들의 개별적 학습기구로 이용될 것이다. 이들 자료와 매체들은 그 특성상 한 장소에 보관하고 운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각각의 명칭을 가칭 '학습자료실', '시청각학습실', '컴퓨터학습실'로 구분하여 이들이 가져야 할 최소필수의 기능을 간략히 살펴본다.

### 1) 學習資料室

학생용 독서자료를 수업운영과 연관하여 適期에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제센터로서 각 단과대학별 또는 학문계열별로 한 개의 자료실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자료실의 운영에는 최소한 전임요원 1인과 보조원 1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 자료실이 수행하여야 할 주요 기능 및 과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과목의 수업에서 어느 때 어떠한 자료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은 교수들이 작성한 授業計劃書를 미리 수집·분석함으로써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 단행본은 자료지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科目別로 분류·보관하여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수강 학생의 수에 따라 수요에 응할 수 있도록 복사본을 필요량만큼 준비하든가 학생들 스스로 복사할 수 있도록 복사기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자료 대출과 회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대출시간은 수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여러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자료실 안에 학생들을 위한 독서 공간을 둘 필요는 없으나,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료실의 지원 업무 또는 기능을 수

업담당자인 교수들에게 상세히 諒報하여야 한다. 교수들이 자료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안내도 있어야 할 것이다.

## 2) 視聽覺學習室

이 학습실은 주로 교수들의 수업 환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단과대학별 수요에 따라 1~2개의 특수교실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청각 기자재를 보관·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장소에서 기자재들을 활용하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학습실은 각종 시청각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광·방음장치를 비롯하여 전원 설비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학습실당 1인의 전문가가 배치됨이 바람직하다. 어떤 종류의 시청각 기기와 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인가는 교수들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가능하면 소프트웨어의 제작이나 구입이 용이한 것, 예컨대 OHP, slide projector, video system, opaque projector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시청각학습실이 수행할 기능이나 업무는 앞서 언급한 '학습자료실'의 경우와 흡사하나, 특히 유의할 것은 교수들이 요구하는 시청각자료의 구입 또는 수집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TP와 슬라이드 같은 간이자료는 이 학습실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자료에 대하여는 구입처나 차용 가능한 회사나 기관을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학습실에 입수된 시청각 자료는 자료 목록과 함께 교수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사용상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3) 컴퓨터學習室

이 학습실의 주된 기능은 컴퓨터를 통하여 컴퓨터가 제시하는 학습프로그램에 따라 학습자가 특정 내용의 학습을 개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컴퓨터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하여 특정 단원의 학습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아직

이러한 방식의 컴퓨터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나, 기업체의 사원교육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교육이 널리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컴퓨터학습실의 주요 기기는 컴퓨터로 보통 크기의 교실에 互換性이 있는 컴퓨터 20~30대를 갖추면 될 것이며, 한 학습실당 1명의 전임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전임요원은 컴퓨터 기기의 조작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 학습실이 수행하여야 할 주요 기능이나 과제로는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대한 컴퓨터 조작방법 훈련, 학습프로그램의 入力과 出力 조정, 컴퓨터 기기의 관리·유지, 컴퓨터 학습프로그램의 수집과 정리·보관을 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대학교육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국내의 움직임도 미진해서 프로그램을 입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이 사실이나, 머지않아 대학에서도 컴퓨터의 수업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5. 結 語

이 글에서는 대학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授業의 개선방향을 학생들이 갖게 되는 교육경험의 특징을 통해 살펴보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수업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는 가능한 支援體制로서 교재센터의 운영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교재센터의 필요성이나 존재양상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관심과 협조여하에 달려 있다. 모든 수업 담당자들이 자신의 수업 개선을 위해 그러한 지원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이용한다면 교재지원센터는 활성화될 것이지만, 한 두 권의 교재로써 충족되는 수업을 운영하려 한다면 교재센터는 존재할 필요도 없고 나아가 도서관의 필요성마저 半減될 우려가 있다.

大學의 教育力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교수들이 운영하는 수업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과 그 수업의 양상은 대학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숙과 교육에의 열성의 징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 교육력의 향상은 결국 대학 구성원들의 교육적 열의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